



제26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

/농어촌공사

군산·철원 저수지 2곳 ‘세계관개시설유산’ 등재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 중 첫 등재
미룡·산명호저수지 추가, 총 10곳

우리나라 저수지 2곳(전북 군산·강원 철원 소재)이 세계관개시설유산(WHIS)에 등재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프랑스에서 열린 제 26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에서 군산 미룡저수지와 철원 산명호저수지가 공사 관리 시설 중 최초로 WHIS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세계관개시설유산은 국제관개배수위원회가 역사적·기술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100년 이상 된 저수지와 수로 등 관개시설을 대상으로 농업발전에 대한 기여와 선도적인 기술 적용 여부 등을 심사해 인증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 김제 벽골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원 만석거, 고성 둑병 관개시스템, 청산도 구들장은 등 8개 시설이 등재됐다. 올해 2곳이 추가되면서 한국의 세계관개시설유산은 총 10곳으로 늘었다.

올해 등재된 두 곳은 오랜 역사를 지닌 시설로 우리나라 근대 관개 발전의 흐름을 보여준다. 미룡저수지는 1600년대에

축조된 뒤 한국 최초의 근대적 관개시설로 개축됐다. 국내 최초의 수리조합이자 공사의 모태인 옥구서부수리조합과 관련된 시설이다.

산명호저수지는 1924년 조성돼 황무지였던 철원 일대를 대규모 곡창지대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근대 광역 수리체계의 핵심시설이다. 현재까지도 미룡과 산명호 둘 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는 두 저수지를 후보지로 선정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국제관개배수위원회에 등재를 신청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것.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 관개시설의 역사와 역할이 널리 알려지고, 두 저수지의 문화·관광자원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 관리 시설이 세계관개시설유산에 처음 이름을 올려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관개시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순항’ 테블린 3·4호기도 지속 협력 기대

산업부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약 25조 규모… 한수원 중심 추진

EU 산업가속화법안 우려 전달
차질없는 추진 위해 韓 공급망 필수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이 일정대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정부가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테블린 3·4호기에 대한 양국 협력도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0일 카렐 하블리체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Dukovany Steering Committee)’를 개최하고 양국 원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약 25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2024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난해 6월 약 1년여간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본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지난 2월 양국 정부와 발주사(ED UII)·공급사(한수원) 간 협의회 발족 후 2차례 회의를 갖고 두코바니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방안을 조율해오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양측은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기 위한 추진일정과 계획을 검토했다. 아울러 두코바니 사업뿐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국의 원전업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지난 3월 발표된 EU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이 비EU 국가의 EU 원전시장 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체코 측에 전달했다. 김장관은 “EU 내 원전 공급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체코 등 EU 내 원전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한국과 같이 우수한 공급망을 갖춘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법안이 양국 파트너십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코 측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양국은 향후 제4차 협의회를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회의

계기에 양국 원전업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간 행사 개최를 병행해 의미있는 성과가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체코 정부가 추진 여부를 검토중인 테블린 3·4호기에 대해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형원전이 필요할 것이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블린 3·4호기에서도 양국 원전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코바니 이행 점검 협의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노사발전재단, ‘노동권 보호망’ 이름 공모전

선정작 1점에 온누리 상품권 50만원

노동권 보호를 위해 모인 ‘민관협력체계’의 공식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 공모전이 열린다.

노사발전재단은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호 민관협력 네트워크’ 이름짓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지방 정부와 민간 노동센터, 노동단체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의 노동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다.

공모전에는 노동권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네이퍼폼에 네트워크 명칭과 그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부가 수행했으면 하는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최종 선정은 다음 달 18일경으로, 심사는 창의성과 완성도, 적합성, 활용성 등을 살펴 이뤄질 예정이다.

재단은 선정작 1점에 온누리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북미 공략 지원

오늘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

통상 환경의 변화로 북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현지 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에서 ‘2026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북미 물류시장 변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재협상 및 원산지규정 강화가 국내 기업의 생산·운송 전략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인접 국가로 옮기는 이른바 ‘니어쇼어링’ 흐름에 대응해 현지 물류 수요와 사업 기회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표에는 국내외 물류·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물류기업 FNS와 미국 국제정책 연구기관 윌슨센터는 북미 공급망 변화와 물류시장 대응 방안을 다룬다. 한화솔루션은 신산업 분야의 물류서비스 수요를 소개하고, 미국 물류기업 제이비 헌트(JB Hunt)는 현지 화물운송시장 동향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짚을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채티, 농식품 수출정보·통계 답변 ‘척척’

(aT의 AI 서비스)

과학기술혁신대상 ‘금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 AI 서비스인 ‘ChaTi’ (채티)가 올해 개최된 과학기술혁신대상에서 ‘금상’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대상은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채티는 대화형 AI 서비스이다.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농식품 수출정보와 통계를 찾아 답변해 준다.

작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채티는 해외시장 동향 및 비관세장벽 보고서 등도 다룬다. 약 8만 건의 농식품 수출정보 플랫폼(KATI) 자료 및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일상 언어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티에는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어려운 전문용어 없이 일상어를 기반으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정보 및 농식품 수출입 통계 관련해 질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농식품 수출정보를 질문 중심으로 전환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정보 활용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뢰도 높은 농식품 수출정보 내부 자료만을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내는 오류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aT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채티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상용 대규모 언어모델(LLM) 도입을 통한 검색정확도 향상,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적용으로 도표·이미지 등 검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선된 채티 서비스는 올해 11월 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미국 관세정책 변동,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개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채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K-푸드 수출 전문 AI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티는 농식품 수출정보 누리집의 ‘지능형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외 우수한식당’ 대중음식점까지 확대

농식품부, 5년간 1000개소로 확대
내년까지 한식 디지털 라이브 마련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 범위가 기존 고급 식당 위주에서 대중적인 식당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정 식당을 총 1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

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편을 통해 대중 한식당까지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지 기관 중심의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

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1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 종사자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조리 매뉴얼과 교육 영상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모바일 기반 ‘글로벌 한식당 아카데미’에서는 조리·위생·식재료 관리 등을 10~2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로 제공한다. 교육 이수실적은 지정·갱신·등급 상향 평가와 연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